

장성군, 전남 최초 대학생 전 학기 등록금 지원한다

조례제정 학기당 최대 200만원 8학기분...24일까지 신청, 12월 중 첫 지급

장성군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학기당 200만원씩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대

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한중 장성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재원은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학교·기관·단체 또는 보호자 직장에서 지원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부담분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30세 이하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이상 학점 취득', '보호자가 공고일인 11월1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과 신청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인재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등록금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고민하는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 16~17일 하니움스포츠크터

화순군이 오는 16~17일 하니움문화스포츠크터에서 '2023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 백신과 면역 치료를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백신 면역 치료 분야 세계적 인포니언 리더들이 참여한다. 첫 날에는 '세션 1 더 좋은 백신과 면역 치료 개발을 위한 미래 기술', '세션 2 면역 치료를 이용한 암 정복', '세션 3 더 좋은 백신과 면역 치료를 위해 가야 할 길'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세션 1에는 서울대 화학부 석차욱 교수, 미국 EpiVax의 CEO인 앤드 그로 박사, 일본 국립감염연구센터 신약개발 연구센터장 다카하시 요시마사 박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세션 2에는 모더나의 개발·치료와 중앙학 헤드를 맡고 있는 카일 홀렌 박사, 전남대 의과대학 민정준 교수, 중국 제약회사인 IASO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상무이사 왕 웨이 박사가 발표한다.

세션 3에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 국제 에이즈 백신 이니셔티브의 수석 과학자인 이정현 박사, 라이트 재단 이훈상 전략기획 이사가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세션 1 항암치료를 위한 면역요법 신기술', '세션 2 세계를 선도하는 면역학과 기초 과학의 발전 방향', '세션 3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추진 전략'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아울러 7회째를 맞는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은 국내외 세계적인 백신 전문가와 기업인,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공공비축미 21만 포대 매입 시작

오늘 대덕읍서 첫 수매

장흥군이 7일부터 대덕읍을 시작으로 2023년산 공공비축미(가무쌀 포함) 매입을 시작한다. 매입품종은 새창무, 강대잔, 가무쌀(바로미)로 장흥군 벼 예상 생산량의 16%인 21만2301포대(40kg기준)를 12월1일까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은 40kg 1포대당 3만원으로 매입 직후 우선 지급한다. 전년도 매입 가격은 특등 6만6660원, 1등 6만4530원, 2등 6만1670원, 3등 5만4890원이었다.

올해 가무쌀은 44만1600kg으로 전량 매입하며 올해 처음으로 매입검사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1등급씩 완화한다. 수확 후 품질 유지를 위해 수분 함량 기준 14% 이하(최저 수분기준 폐지, 일반벼 수분 13~15%)로 정했다.

공공비축미 품질검정 위반, 잔류농약 검출 등 시책위반 농가는 매입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 친환경 벼의 경우 농약 검출 시 인증이 취소되며 모든 농가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포장자재는 반드시 유효 제공된 농식품부 고시규격품인 소형포대나 톤백포대(800kg)인 새포장재를 사용한다"며 "품질검정 위반 등 시책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치매센터 작천 분소서 치매예방 교육

24일까지...매주 수·금요일

강진군이 오는 24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작천 분소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수·금, 2회에 걸쳐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 작천분소는 치매안심센터 본소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군민에게 치매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치매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2월 11일에 설치됐다.

치매 예방 교실은 전문가를 초청해 치매 예방 교육 및 운동, 공예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뤄진다.

강진군보건소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예방교실, 치매환자 쉼터,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통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치매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폭 넓은 치매 관리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농수산물식품 베트남 진출 확대...300만달러 수출 협약

하노이 분사 '동양농수산물'과 40억원 규모 유통 협약도 체결

나주산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나주시는 강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방문단'이 최근 '베트남 동양농수산물'과 300만달러(39억3600만원)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촉진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수출시장 확대를 이끈 방문단은 강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골든힐,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완도물산, 가보팜스 등 농수산물업체 대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직원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동양농수산은 2013년 베트남 하노이에 분사를 설립한 글로벌 농수산물 유통업체다. 하노이·호치민·하이퐁 등 5곳 지역에 매장 7곳을 운영 중이며 연평균 106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업체다.

무엇보다도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나주산 농수산식품이 점유하고 있어서 수출 확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동양농수산은 이번 나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40여억원 규모의 나주산 농수산식품을 베트남 현지 자사 마트에 추가로 유통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베트남 현지 수출시장 확대 개척



강영구(오른쪽 여섯 번째) 나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방문단'이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분사들을 동양농수산물과 300만달러(39억3600만원)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촉진 협약(MOU)을 체결했다.

대 노력은 계속된다. 하노이에 위치한 원마트와 플러스마트에선 오는 15일까지 나주 농수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수출·홍보 판촉 행사가 진행된다.

원마트는 베트남 전국에 123개 대형 유통매장과 2500여개 편의점을 보유한 베트남 내 최대 유통업체다. 프리미엄 수입 신선식품 유통 분야에서 타 유통업체와 크게 차별화된다.

나주시는 이번 베트남 현지 수출시장 확대 개척

에 힘입어 민선 8기 들어 해외 농수산물 수출 협약 규모가 1900만달러(249억3000여만원)로 증가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나주배, 나주쌀을 비롯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산지 농산물을 가공한 농수산물식품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땀방울이 실릴 소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흥군의회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흥군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자치·혁신 등 평가

장흥군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에서는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 전국 94개 의회가 참여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2차 본선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9개 우수 기관이 선정됐다.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은 본선에서 '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이라는 주제로 의회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주민 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토

론 방식으로 마련했다. 지역민과 의회, 집행부가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흥군의회 G.T.S.의 방식을 도입했다. 9대 장흥군의회는 연구모임 G.T.S.(골든타임 스티디)를 만들어 해결책을 도출해왔다.

의회는 토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난립을 방지했다.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장흥군의회 의원 7명 모두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1순위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문화 분야...행안부장관 기관상

담양군이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 분야 우수 사례 전국 1위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선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14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361건의 우수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건(우수 1, 장려 2)을 선정했다.

담양군은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2022 담양 아트워크!' 사례를 통해 문화 분야에서 우수기

관으로 선정됐다.

담양 아트워크는 문화재단과 공예인협회, 담양군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공공체가 함께하는 행사로, 담주 예술극, 해동문화예술촌, 담빛예술창고 등 도시재생사업 공간을 활용해 체험과 축제를 연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담양다움이 드러나는 '예술거리의 관광 브랜드화'를 실현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로 군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내륙형 관광도시 1번지 담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함평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치안파트너 협력 강화

함평경찰이 교통안전캠페인 및 휴일 교통안전활동을 병행하는 등 치안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함평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공동체인 모범운전자회(회장 이상득)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국향 대전' 행사 기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군 단위 경찰서는 교통경찰이 평균 5명 안팎으로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치안 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민참여 치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함평서 교통관리 업무를 맡은 류시범 경감은 지역역추진 국향대전 기간 휴일 교통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 등을 하며 유관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에도 논의했다.

윤창기 함평경찰서장은 "주민참여 치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지방·모운회·녹색 등 치안파트너와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